

慢性腎臟病의 防止

만성신장병이라고 하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신장의 기능이 궁극적으로 소실되면 이를 만성신부전이라고 하므로 일반적으로 만성신장병이라는 말은 만성신부전 상태를 의미한다고 보겠다.

신장에 손상을 일으키는 기전은 크게 8가지 정도로 정리해볼 수 있다. 첫째는 면역병리학적 기전으로 신조직에 대한 직접적인 항체로 일어나는 것. 신장과는 직접관계가 없지만 몸안에 어떤 물질에 대한 항체가 생긴 경우 이 항체와 항원이 결합한 면역복합체가 신장의 모세혈관에 침착되어 신장에 손상을 일으키는 경우, 항체형성없이 살해T 립프구가 신조직을 손상하는 경우 및 보체계가 활성화되는 경우 등이 면역병리학적 신손상기전들로 알려져 있다.

두 번째로는 세뇨관을 포함한 요로계의 폐색이 신손상을 유발하는데 신결석, 색소, 결정들이 폐색의 주 원인이며 때로 혈리나 종양, 외부적 압박들이 폐색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세 번째로는 혈액응고 기전으로 전신적혈관염, 당뇨병 성신장병의 말기, 및 공피증후의 신손상과 악성고혈압에서의 신손상이 혈액응고기전과 관계가 같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네 번째로는 감염으로 신우신염과 같이 직접적으로 신실질을 침범하는 경우와 전신감염등에서 신손상이 유발된다.

다섯 번째로는 당뇨병등과 같이 유전적이고 대사관련질환들이 신손상을 유발하며 여섯 번째로 전신적혈관염등에게 신손상이 유발된다.

일곱 번째로 암과 같은 신생물에 의한 것으로 직접손상과 암에 의한 요로폐색 및 암으로 인한 면역병리학적 손상등이 관여한다.

여덟 번째로는 신장에 독작용을 일으키는 소위 신독성물질들에 의한 신손상인데 신독성물질로는 우선 수은, 납, 카드뮴, 비소, 우라늄, 버스무드, 리치움, 금, 은과 같은 중금속이 지적되며 여러 가지 약물들에 컨데 방사선조영제, 몇 가지 항생제 및 진통제등이 열거될 수 있으며, 자동차 부동액으로 쓰이는 에틸렌글라이콜과 같은 대량알콜, 벤젠과 같은 유기용매등이 꼽히

고 유리 헤모글로빈 및 균육색 소인 마이오글로빈과 같은 색소, 칼슘 및 경쇄단백등 결정물질들이 일반적으로 신독소로 지적된다.

신장은 잘 알려진 것처럼 배설기관, 내분비기관 및 대사기관의 복합적 기능을 가진 주요장기로 체중의 60%에 이르는 수분의 양과 그 성분을 일정하게 유지하고 대사산물로 생기는 노폐물질을 배설하여 피를 깨끗이 하고 전해질의 균형을 유지하여 피가 산성화되는 것을 막아준다. 신장이 기능을 잃으면 이러한 기능장애로 체내의 수분과 전해질은 쉽게 균형을 잃고 파는 산독증을 나타내므로 혹자는 만성신부전으로 오는 요독증을 일종의 중독현상이라고 정의하기도 한다.